

“곧 수확철인데”...폭설이 할퀴고 간 딸기 농가 ‘한숨’

시설하우스 피해 집중된 담양...31개 농가 피해 집계
 “피해 농가,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방침 마련해야”

“인자 열흘만 있음 따다 팔 수 있었는데 캄잡스럽소.”

24일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 이곳 주인 임종업(63)씨는 폭설과 강풍으로 처참하게 찢긴 비닐하우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일군 660㎡ 규모 시설하우스 1동의 용마루는 전남 새벽 불어 닥친 강풍을 버티다 못해 활대처럼 휘어버렸다.

용마루가 휘면서 비닐이 찢겨 날리자 지지대 역할을 하던 철봉들이 생선 가시처럼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다.

찢어진 비닐 아래로 눈이 20cm가량 수북히 쌓이면서 딸기 모종 7000여 개가 모조리 얼어버렸다.

눈을 맞은 모종은 밤사이 내린 눈에 깔려 새파란 색으로 질린 채 납작 엎드렸다.

임씨가 손으로 어루만진 모종은 줄기 속 물관이 얼어붙은 탓에 힘없이 푹푹 끊겼다.

모종이 맥 없이 끊어질 때마다 임씨는 가리앉은 목소리로 “애썼다”고 혼잣말을 했다.

임씨는 다음달 초 망가진 시설하우스를 포함한 5동에서 딸기를 수확해 출하할 예정이었다.

임씨가 농사를 짓는 대전면은 담양군 안에서 딸기 품질이 높기로 유명하다.

대전면의 딸기는 1kg당 1만 7000원~1만 8000원 사이에 책정되는 최근 농협 경매가보다 추가로 2000원~3000원은 더 받을 수 있다.

한 동당 3000만원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열흘 앞둔 수확철만 기다려왔으나 폭설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강풍에 흰 용마루가 바로 옆 시설하우스 2동의 천장 비닐을 뚫으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습도에 예민한 딸기가 용마루 탓에 생긴 구멍으로 품질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25년째 농사를 지어온 그는 이 같은 폭설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15년 전 비슷한 규모로 눈이 왔음에도 버텼던 시설하우스가 이번 폭설에 꼼짝 없이 파손됐다.

피해 하우스 1동을 새로 올리는 데는 약 21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작물 피해 보상을 든 덕에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시설의 경우 60%까지만 보전되는 까닭에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별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씨는 “약 15년 전에서 비슷한 규모로 눈이 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며 “용마루가 바람에 들려 휘어진 적은 처음이다. 7000개 모종은 안타깝지만 모



24일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딸기 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농장주 임종업(63)씨가 폭설 피해를 입은 딸기 모종들을 바라보고 있다.

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담양군 고서면에서 딸기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임동만(39)씨도 용마루 일부가 주저앉은 시설하우스 위의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귀농 내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그는 이번 폭설에도 체념한 듯 삼으로 눈을 파내고 있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운영하던 딸기 시설하우스 5동이 모두 물에 잠겼다. 올해 10월에는 태풍으로 시설하우스 1동의 비닐이 날아갔다.

태풍 피해를 수습한 지 불과 두 달만에 폭설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으면서 상심이 크다.

농업 관련 행정기관에 기후변화와 자연재

해에 따른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관련 작물만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기후에 맞는 내재해성 시설하우스 보급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재난과 같은 상황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에 고속도로 만들어지나”...타당성 용역비 3억원 확보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에 세운 여수문.

전남 여수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이 현실로 다가왔다.

기존 고속도로 연장·신설·전용도로 승격 등 방안 모색
 주철현 의원 “지역사회 뜻만연해 고속도로 확보 총력”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여수시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설득해 3억원의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는 여수시와 전라남도 가 지난 20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 여수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되면서,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숙원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용역비가 확보되기까지 정치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한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상대로 여수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 집요하게 주장했다.

지난 9월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속도로 여수 연장 필요성을 질의해 원외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기도 했다. 또 11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거듭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관철을 이뤘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수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 지역 숙원사업의 첫 실마리를 잘 풀어낼 수 있었다”며 지역의 숙원인 만큼 연장인 신설이든 기존 전용도로 승격이든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고속도로로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통 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